

푸드테크 특화 지식재산 보호 적극행정 협력

지식재산보호원-전북자치도, 푸드테크 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2일 전북자치도청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김용선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도내 푸드테크산업의 고부가 지식재산 창출은 물론 거래·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발명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지식재산 보호 전문 공공기관으로, 지식재산 보호 실태 조사, 국내외 특허 분쟁 사례 및 대응 전략 연구,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등 다양한 지식재산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공동연구, 실증 및 제품 개발 시 고려되는 지식재산권 보호, △영업비밀 기술 유출방지 지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보호 △관련 교육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2일 전북자치도청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김용선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 출범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롯데중앙연구소, 풀무원, CJ제일제당 등 식품 대기업과 푸드테크 중소기업, 농생명 혁신기관 간 오픈이노베이션 추진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협약으로 인해 기업들의 지식재산

권 유출 우려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푸드테크 산업분야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푸드테크 스타트업은 관련 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대기업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마케팅 수단 등 기업성장의 필수요건인 지

식재산권이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실정이다.

해의의 대표적인 대체육 기업인 비온드 미트와 입파사를 푸드 역시, 기업의 기술을 보호받으려 전 세계 수백 건의 적극적인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홍보 기업공개(IPO)에서 중요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로써 푸드테크, 특히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에서 전국의 스타트업-대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의 협력을 계기로 푸드테크 산업의 지식재산 정책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업 활동하기 좋은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푸드테크 산업에 특화된 지식 재산권 보호와 영업비밀·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푸드테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22일 오전10시 본점 5층 대회의실에서 김영일 농협전북본부장, 대의원, 임·직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52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주농협, 제52기 정기총회 개최

김영일 농협전북본부장·대의원 등 160여명 참석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22일 오전10시 본점 5층 대회의실에서 김영일 농협전북본부장, 대의원, 임·직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52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전주농협 우수 조합원 및 우수직원 등에 대한 시상과 함께 제52기 결산보고서와 2건의 안건 등을 승인했다.

전주농협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3년도 결산 결과 예수금 1조 1,170억 원, 대출금 1조 4,630억 원으로 상호금융사업장 3조 1,800억, 경제사업대출 1,312억 원의 달성했다.

특히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 85억을 집행하고도 2023년

당기순이익은 전주농협 역사상 최대의 수익인 약 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성장했다.

한편 전주농협은 2016년부터 작년말까지 농사연구 182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조합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2024년도부터 새로 시행하는 '무병장수 기원사업'은 농민 조합원의 건강을 기원하는 취지로 59세 이상의 조합원 약 5,500명에게 소고기 및 미역구려 등 생일꾸러미를 제공한다.

조합원별 담당직원을 배정하는 조합원 건강지원이 담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감동을 주는 농협으로 거듭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농어촌공 전북, '선임대 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선임대 후매도사업' 신청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청년농에게 매도 조건부로 장기 임차하여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시범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1984. 1. 1.부터 2006. 12. 31. 출생자)으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중사업의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상의, 신설 국가기술자격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시험 시행

'미래 빅데이터시대 취업 필수 자격증 전망'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올해에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된 경영정보시각화능력(Business Intelligence Specialist)시험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은 기업의 내외부 정보를 시각화 요소들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상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데이터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능력이 업무상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직업에 필요한 역량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및 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시각화하는 능력 향상이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한 배경이라고 밝혔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격을 취득할 경우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시각화(BI)도입으로 관련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있다. 미래 필수 사무 소프트웨어로 어느 직무에서나 요구되는 자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시험은 필기시험 2회, 실기시험 1회가 시행된다. 필기시험에는 경영정보일반, 데이터

해석 및 활용, 경영정보시각화 디자인 등 3과목이며 실기시험은 경영정보시각화 실무를 컴퓨터로 작업한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 금융기관,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시각화(BI) 툴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시각화능력은, 현재와 미래에도 취업에 매우 유용한 자격증이므로, 우리지역 청년들이 많이 취득을 해 취업에 도움이 바란다"고 했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격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나 전주상의 검정정보부(063-280-117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 상담 챗봇 개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4대 사회보험 민원 상담을 위한 챗봇 서비스(국민민서 구베)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챗봇은 4대사회보험 △가입 및 상실 △보험료 자동이체 △증명서 발급 △사업장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등의 신고·신청 방법을 24시간 안내한다. 이용 방법은 화면에 있는 메뉴를 순



차적으로 선택해 답변을 찾는 방식과 채팅창에 검색어를 입력해 답변을 찾는 방식 두 가지다.

별도 회원가입이나 앱 설치 없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www.4insure.or.kr)와 국민민서(www.ips.gakr)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정화 연금이사는 "고객센터 상담 내용과 챗봇 이용 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더욱 편리하고 수준 높은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개발공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앞장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대한 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등 현장 관계자와 상생간담회를 통해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달성목표를 수립하는 등 올해 한해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전망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신규 발주한 익산 부송4지구 공공임대, 김제 도시재생 중심거점시설, 고창 덕산지구 조성공사, 익산 부송4지구 조정·전기공사 등 16개 건설현장은 100% 도내업체(866억원)가 수주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지역전문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 인력·장비 사용률 각각 92%와 98%로 달성하는 등 도내 건설업체가 거의 주도적으로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정호는 자치도 조례 기준에 상회하는 지역건설 활성화 목표(지역업체 참여율 75%, 지역 인력·장비 사용률 90% 이상)를 수립하고, 신규 발주 사업에 대해 지역제한 또는 지역업체 공동참여 49% 이상을 의무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도내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앞장서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